



## 대관령 신령이 지키는 도시의 축제 강릉단오제

**고**대인들은 축제를 통해 액운을 막고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였는데 이것은 축제 속에 공동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앙과 사상이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명화 과정은 축제의 종교성을 약화시키고 현재적 욕구를 반영하는 오락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제의 본질적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왜 축제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인간의 생존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학자는 축제가 없는 민족은 살아서도 산목숨이 아

니고 죽어서도 고이 잠들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만큼 축제는 그 민족을 대변하면서 인간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강릉의 수호신 대관령국사성황

강릉 사람들은 새 차를 구입하면 강릉을 지켜주는 산이자 산신이 거쳐한다고 믿는 대관령을 향해 차를 세우고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의 주민들에게 대관령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산이며 다른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고개였다.

영동지역 사람들은 가장 높고 신성한 대관령에 국사서낭님이 좌정하여 주민들의 삶을 관장하고 보호해 준다고 믿어 왔다. 그래서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가 되면 대관령서낭을 제사하는 향토신제로 그해의 안녕을 기원해 왔고 그 전통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신앙심의 표출로 시작된 문화행위가 바로 강릉단오제이다.

강릉단오제의 역사는 강릉문화의 시작과 그 명맥을 같이해 왔다. 부족국가였던 동예(東濊) 때부터 오월제(五月祭)의 성격으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여론이며 문헌기록은 고려 때부터 나타난다. 또한 대관령서낭에 대한 다양한 구전기록 역시 오랜 역사적 전통을 대변하고 있다.

“대관령국사성황신, 대관령국사여성황님께 아뢰옵니다.

삼가 생각하기로 존령은 저희의 중요한 자리에 계신 국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전해오는 단양절에 제사를 지내 받드오니 저희를 살펴 주소서.

재앙과 환난을 막아주시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은 성황님의 은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신에 의지하고 신은 인간에게 감명받습니다.

시민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바라는 것은 물과 불과 가뭄의 재앙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거스르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맞은 비와 고른 바람을 주시어 풍년이 들도록 해주시고 온갖 가축이 번성하고 오곡, 산림, 바다가 풍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에 좋은 날을 가려 정성껏 제수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변변치 못하나나 정성을 다하였사오니 돈독함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

앞드려 존경하는 신령께 바라옵건대 부족한 성의이오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강릉단오제 국사서낭제 축문)



대관령으로 국사서낭신을 모시러 갈 때 가장 먼저 지내는 산신제

### 강릉단오제의 의례

강릉단오제의 의례는 유교식 제례와 무당의 굿이 혼합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고대 축제의 제정 일치 사회의 관습이 전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관과 민의 신앙이 공존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강릉단오제에서 모시는 신은 ‘대관령산신’과 ‘대관령국사서낭신’ 그리고 ‘국사여성낭신’이다.



단오제의 시작인 신주 빗기(위)와 시민참여행사로 진행되는 씨름대회(아래)

신라의 명장 김유신으로 알려져 있는 대관령산신은 음력 4월 보름, 대관령으로 국사서낭신을 모시러 갈 때 가장 먼저 산신제를 지내 대접한다. 대관령에는 산신당과 성황사가 있다.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국사서낭신은 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 중의 하나인 굴산사를 창건한 강릉시 학산 출신의 범일국사이다.

단오제는 음력 4월 5일 칠사당에서 신주 빗기(신에게 바칠 술을 만드는 것)라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4월 보름이면 대관령에 올라 대관령산신에게 산신제를 먼저 올리고 국사서낭신을 모셔오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산신제와 굿판에 이어 신목을 베는데, 신목은 국사서낭신의 신체를 의미하기에 전체 제례의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각별하다. 국사서낭신의 위패와 오색예단이 걸린 신목을 모신 일행은 무악을 올리면서 대관령을 내려온다. 무리는 강릉시내를 한바퀴 돈 뒤 비로소 국사여서낭신이 모셔진 여서낭당으로 향한다. 당 안에 나란히 두 신의 위패와 신목을 모셔놓고는 제관들이 유교식 제례를 올린 뒤 무당들이 부정굿과 서낭굿판을 벌인다.

이 때부터 여성낭당에 모셔진 위패와 신목은 단오제가 시작되는 음력 5월 3일까지 그 곳에 모셔진다. 국사서낭신이 정씨 처녀를 데려다가 혼배한 날이 바로 음력 4월 보름이었다. 그러므로 두 분을 합사하는 일종의 봉안의례인 셈이다. 국사서낭신은 단오제가 끝나면 짧은 기간 동안의 합사를 끝내고 다시 대관령 서낭당으로 모셔진다. 이 때 역시 작은 축제 판이 벌어지는데 이를 송신제라고 한다. 그리고 5월 5일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조전제와 굿을 행하며 마지막 날인 5월 7일에 송신제와 소제가 행해진다.

### 시민이 함께 하는 전통축제

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단오명절을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벌이는 신나는 놀이판이다. 단오는 설날,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이지만 단오행사는 현재 전국에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은 영동의 강릉, 호남의 영광 법성포 단오제 정도가 지역적 명절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축제의 절정은 뭉니 뭉니 해도 단연 단오굿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는 무속으로 부정굿, 축원굿, 조상굿, 세존굿, 성주굿, 심청굿 등 많은 굿이 벌어진다. 음력 5월 4일 조전제가 끝난 뒤 11시경부터 시작하여 저녁 8시까지 나흘 동안 계속된다. 굿은 무녀가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고하고 노래와 춤으로 신을 기쁘게 하며 복을 빌고 액을 막는 의례로 무녀는 여러 신들을 모

시면서 공동체의 안녕과 생업의 번창을 빈다. 단오굿과 함께 강릉단오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가면무연극인 관노가면극과 학산오독떼기, 강릉농악 공연 외에 그네뛰기, 씨름 등 전통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또 다른 매력은 '난장'에 있다. 상가와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공존하는 난장은 없는 물건이 없을만큼 그 규모가 대단하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난장을 통해 축제를 이해하고 정보를 얻으며 이것은 다시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된다. 강릉은 지리적으로 영동지역 문화의 중심축으로 대관령 너머 영서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오제에서 벌어진 난장에서 물질적인 교환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풍부해지면서 소비를 통한 여유로움이 놀이문화를 끌어들이는 순환을 되풀이 한다.

### 지역을 넘어 세계의 축제로

오랫동안 민중이 즐겨온 축제인 강릉단오제에는 사회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흥겨

강릉단오제의 또 다른 매력인 난장



관노가면극의 주인공 양반광대와 소매각시를 묘사한 축제 조형물

움이 있다. 천년을 이어온 강릉단오제의 흥겨움은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나누는 문화교류의 현장이 되었고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관광민속제와 결합시킨 단오제가 치러졌다.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남대천 시민공원을 무대로 단오민속체험과 민속놀이, 지정문화재 공개행사, 무형문화재 공연과 경축문예행사 등 5개 분야 42가지 종목의 행사가 대규모로 진행되며 행사 참여자와 관람자는 사상최대가 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내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 심사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강릉 시민이 힘을 합쳐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폭우 속에서도 영신행차에 참여한 시민들과 축제의 도우미로 자원한 시민들의 노력만큼 앞으로도 강릉의 정체성을 간직한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서의 단오제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서 공유되고 전승되길 기대한다.

(양금식)